**☯ 탈춤의 기원**

탈춤이란 탈을 쓰고 하는 연극이다. 탈춤은 놀이꾼과 구경꾼이 함께 판을 짜는 대동놀음이다. 오랜 시기에 걸쳐 탈춤은 우리 민족의 중요한 놀이의 한 양식으로 전승되어 왔다. 탈춤은 생활 속에서 행해졌으며 탈춤 그 자체가 생활의 일부이거나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연희의 공간과 시간은 실제 민중의 삶의 현장이며 현재의 삶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탈춤은 대동놀음으로의 축제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탈이 처음으로 보여지는 것은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개껍질에 두 눈과 입을 뚫은 이 탈은 사용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술의 의미로 쓰여진 듯 하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주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굿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는 극으로의 전환에서 굿에 이용되었던 극적 요소들을 발전시켜 내며 탈춤은 생성되었다. 물론 초기 농경사회에서는 민중과 지배자간의 공동행사로 탈춤이 거행되었지만 사회가 분화되면서 점차 민중들만의 행사로 변화되었다.

탈춤은 그 기원에서 볼 때 생산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원시 농요제의나 부락의 안녕, 번영을 비는 부락굿 등이 목표하는 바는 제의를 통한 자연과 인간의 소통, 화해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전승되는 탈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축제적 전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적인 탈춤의 전승은 약화된 구성원의 결속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라져 가는 축제의 의미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데서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분류**

오늘날까지 전해 온 탈춤은 지역적인 특성, 발생 계통, 그 내용이나 탈꾼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입장에서 분류해 볼 수 있다. 대체로 각 마을 단위의 현지 주민에 의해 자생적인 놀이로 된 것과 유랑 예인들의 놀이로 된 것, 이 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의 것을 두레패적인 탈춤이라고 한다면 뒤의 것은 사당패적인 탈춤이라고 할 수 있다

두레패적인 탈춤은 농경 사회에서 집단적 마을굿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마을 행사의 하나로서 출발한 탈춤은 대방 전래의 각종 교방잡이와 불교 선전극의 일종인 기와, 그리고 궁중 의식의 연희 등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자라나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도시가 성립되자 농촌탈춤에서 도시탈춤으로 변모되거나 풍물의 잡색 놀이로 남게 된다. 오늘 현존하는 대부분의 탈춤은 강릉단오굿의 관노놀음이나 북청사자놀음, 하회별신굿 등과 같이 대륙 전래의 것 이전의 토착적인 탈춤(봉산탈춤)을 제외하고는 거의 도시형 탈춤이다.

이들을 지방별로 구분해 본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원의 산대놀이(양주별산대,송파산대) 황해도를 중심으로 한 해서 지방의 탈춤(봉산,강령, 은율) 그리고 낙동강을 가운데 두고 그 동쪽 부산 일원의 야류(수영야류, 동래야류)와 서쪽의 경남 일원의 오광대(고성오광대, 통영오광대, 가산오광대) 등 으로 분류된다.

사당패적인 탈춤으로는 남사당패의 덧배기, 중매구패의 걸립패나 주로 호남지방 솟대장이패의 탈춤 등이 있으며 무당굿 놀이에서 등장하는 탈춤 등이 있다.

**☯ 탈춤의 성격**

탈춤은 가무적 성격이 우세하여 원초적인 놀이성을 강조하는 독특한 연출법을 보이고 있으며 발달, 전개, 전환, 대단원으로 이어지는 갈등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하나의 탈춤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주제로 다루는 개별적인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탈이 갖는 은폐성, 상징성, 표현성에 덧붙여 일반 서민들의 삶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는데 파계승, 몰락양반 등을 등장시켜 현식 도덕의 추악함과 특정 지배계층의 비리를 마구 공격하면서 극적 갈등을 더해간다.